

영어강의 개설증가 ... 학생 소극적 반응

전공·영어 이중부담 수업 따라가기 급급

이번 학기부터 영어강의 개설이 늘었지만 정작 영어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 소극적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학기부터 영어강의에 인센티브가 확대 적용되면서 지난 학기보다 5강좌 늘어난 21개의 영어강좌가 이번 학기에 개설됐다. 교무처(처장=신재호·전자공학)는 이번 학기부터 영어강의를 장려하기 위해 교수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늘리고 영어강의에 한해 절대평가를 실시하기로 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일반 강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성적을 받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영어 강의에 대해 학생들은 대부분 '부담 스태프'는 반응이다. 지난 학기 영어 강의를 수강했던 이주미(문과대1)양은 "수업을 따라가기에 급급했다"며 "수업의 내용과 영어를 동시에 공부해야 하는

이중 부담 때문에 어느 쪽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난 학기 영어강의를 진행해 온 박인국(생물학) 교수 역시 "학생들이 강의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도 수업진행에 때문에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었다"며 수업진행의 어려움을 밝혔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학기 16개 강좌가 영어강의를 신청했으나 두 강좌만이 영어로 끝까지 진행됐고, 나머지 강의는 중도에 포기했다. 또한 이번 학기에도 영어강의로 변경된 수업을 신청한 학생 중 30% 이상이 비슷한 과목으로 바꾸는 등 '영어강의 기피현상'을 보였다.

사과대의 한아름양은 "교수님의 발음이 좋지 않아 수업내용을 이해하는데 애를 먹었다"며 "유학과 출신 교수 중 몇몇을 제외하고는 교육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과노성(국제통상학) 교수는 "강의를 하기

에 앞서 교수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 밑받침이 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몇 년 동안의 유학생들을 한 교수들도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학년인 3, 4학년들은 다소 긍정적이다. 취업을 앞둔 한 4학년 학생은 "수업을 통해 전공과목과 영어를 동시에 배울 수 있어 효율적이다"며 "예습을 하고 수업에 들어간다면 그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각 대학의 영어강의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영어가 세계 공용어로 통하는 이상 영어강의는 개인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피할 수 없는 요소가 되었다.

따라서 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와 교수들의 꾸준한 수업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출>

chof55@dongguk.edu



"비나이다" ... 단과대 풍물패 연합(회장=장학수·선2)은 지난달 28일 개강을 맞아 학생회관 앞에서 개강굿을 열었다. 이날 단풍연은 동악 곳곳에서 풍물을 연주하며 길놀이를 하고, 학생회관 앞에서 2학기 동국인의 운을 기원했다. 또한 굿이 끝난 후에는 구경하는 학생들과 함께 술과 떡을 나눠 먹는 정겨운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염태규 기자
snail11@dongguk.edu

교원인사규정 개정

주관적 판단 막기위해 평가공정성 제고해야

심회기 교수 사건 계기 ... 재심사 절차 포함

재임용에서 탈락한 후 심사의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해온 법과대 심회기 교수가 지난 1일 다른 대학 교원으로 임용되면서 6개월간 지속된 논란이 일단락됐다.

재임용에서 탈락한 한 학기 만에 타대학에 신규 임용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심교수가 채용된 연세대 원주캠퍼스 교무처의 한 관계자는 "연구, 수업 등 부문에서 공정한 기준의 평가를 통해 채용됐다"고 말했다.

심교수가 재임용에 탈락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적됐던 교원인사평가 관련 규정은 지난 7월 4일자로 개정됐다.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학기 심교수가 요구했던 '평가받는 교수의 이의 제기'에 따른 재심사 과정이 포함됐다. 또한 인사평가에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단과대 인사평가위원회와 교무처장만 실시하던 평가에 기획인사처장도 참여하게 됐다.

이밖에도 법과대와 같이 단일 학과로 구성된 단과대의 경우에는 총장이 다른 단과대의 교수를 인사평가위원으로 위촉해 학

과 내의 '불협화음'이 인사평가에 반영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심익섭(행정학) 교수회장은 "인성평가는 기본적으로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평가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심교수 사건에서 또 다른 문제로 지적되어온 재임용 탈락된 교원의 법적 대응 장치도 교육 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에서 추진중인 교육공무원법임용령 개정을 통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교육부는 재임용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교육공무원법임용령을 개정 중이다. 그동안에는 재임용에서 탈락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었지만, 개정이 확정되면 법적 근거가 마련돼 교수들도 학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재임용에서 탈락하면 우선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여기서 패소할 경우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게 된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계약제와 연봉제가 실시되면 부당한 교수 재임용 탈락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비판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법령 개정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심회기 교수 사건은 같은 단과대 소속 교수들의 인성평가 때문에 재임용에서 탈락한 선례를 남겼다.

그동안 발생한 타대학의 재임용 탈락 사례를 보면 대부분 재단·학교와 교수와의 갈등이 표출된 것이었지만, 이 같은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한 경우는 심교수 사례가 처음이다.

이른바 '인성평가'가 교수사회에서 동료교수들에 의한 평가인 만큼 인간관계가 평가에 개입될 수 있는 문제를 남겨주고 있다.

이때문에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등 여러 교수단체들이 이 사건에 주목하기도 했다.

한편, 법대 학생회는 교별강의와 승별회 등을 치를 예정이다.

김도영 기자
circus@dongguk.edu

지면안내

☞ 문화식민지로 전락하다 7면

☞ 장애인 이동권 복지 4면

☞ 명성황후를 둘러싼 논쟁 5면

'문화 홍수'라 불리는 요즘, 자국의 문화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문화수용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에 세번에 걸친 '우리 문화 살리기' 기획을 통해 우리 문화의 문제점을 짚어 보고, 발전방향에 대해 전망해 본다.

☞ 장애인 이동권 복지 4면

☞ 명성황후를 둘러싼 논쟁 5면



중도파

장 계 환 (불교대학 불교학과)

요즘 연일 신문지사를 통하여 자주 사용되는 단어들을 살펴보면 '보수·급진' '좌·우파' 등이 주로 눈에 띈다. 그러나 이러한 단어들은 그 속성상 상대의 부당성과 잘못, 그리고 지나침을 비난하는 입장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이다.

어쩌서 자신의 생각·주장·견해·소신은 정당하고, 상대방은 나쁘다고 비난하고 매도하여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회가 되어버렸는지 모르겠다.

우리 불교에서는 사람뿐만 아니라, 생명 있는 것이라면 모두 평등하게 그 존재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즉 제각기 모양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조화롭고, 또한 풍요로울 수가 있다. 마치 백 가지의 풀이 모두 약이 될 수 있는 것은 각기 다른 성분을 가졌기 때문이듯이, 한 가지 풀만 달여서는 결코 좋은 약이 될 수 없다. 결국 슬모가 있기 위해서는 서로가 갖지 않아야 된다는 뜻이다. 또한 여러 가지 꽃들도 그 모양과 향기가 다르으로써 더욱 아름답고, 사과와 배도 그 맛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사랑을 받는다.

그동안 발생한 타대학의 재임용 탈락 사례를 보면 대부분 재단·학교와 교수와의 갈등이 표출된 것이었지만, 이 같은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한 경우는 심교수 사례가 처음이다.

이른바 '인성평가'가 교수사회에서 동료교수들에 의한 평가인 만큼 인간관계가 평가에 개입될 수 있는 문제를 남겨주고 있다.

이때문에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등 여러 교수단체들이 이 사건에 주목하기도 했다.

한편, 법대 학생회는 교별강의와 승별회 등을 치를 예정이다.

김도영 기자
circus@dongguk.edu

발전기금 ARS 7000-119

일산병원 건립기금 줄이어

일산병원 건립기금으로 지난 주에만 4천여만원이 기부됐다.

국제정보대학원 고위정책과정 7기 졸업생들과 남양주시 봉선사 주지스님인 일면스님은 지난달 28일 일산병원 건립기금으로 각각 3천만원과 1천만원을 기탁했다. 이에 앞서 경북 청도군 운문사 승가대학 7기 동문회가 지난달 24일 1천만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출판부, 우수도서로 선정

문화관광부가 주최한 '2001 우수학술도서 공모'에서 출판부(부장=문기근) 도서 3종이 문학 분야에 선정됐다.

선정된 도서는 △일본 메이지 문학사 △일본 다이쇼 문학사 △일본 쇼와 문학사로 본교 교재(국어교육) 교수와 일본학연구소(소장=공로명·국제학과 석좌교수) 김환기 연구원이 공동으로 번역했다. 이번 우수학술도서 선정된 책은 문화관광부로부터 한 권 당 각각 550만원씩 지원금을 받게 된다.

독일 자매대학 어학연수 실시

레겐스부르크대, 수업료 전액부담

독일 레겐스부르크 대학에서 독일어 연수가 2002학년도 부터 처음으로 실시된다.

내년 9월 2일부터 10월 11일까지 6주간 진행되는 독일어 연수는 지난 89년부터 본교와 교류해 온 레겐스부르크 대학과 학생교류 활성화방안의 일환으로 시행하게 됐다.

이번 독일어 연수는 레겐스부르크 대학이 '동국대 연수과정'을 신설해 진행된다.

연수비용 중 수업료는 레겐스부르크 대학에서 전액 부담하고 본교는 항공료 일정금액을 지원해 연수생은 숙박비와 항공료 일부만 부담하면 된다. 연수선발 인원은 15명으로 지원서 교부와 접수는 오는 10월부터 다음달 12일까지 국제교류실에서 한다.

연수생중 학부생에게는 독일어 연수 3학점이 인정되며, 연수는 △중급 문법 △독해 △회화 △음성학 학습으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해 연구처(처장=최순열·국어교육) 국제교류팀의

한 관계자는 "오슬로 대학에 이은 이번 독일어 연수 협정이 유럽대학과의 교류를 더욱 활성화시킬 것으로 보인다"며 "양대학의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적은 경비로 독일어 연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글대장경 완간 회향법회 오는 5일 장충체육관에서

'한글대장경 완간 회향법회'가 오는 5일 오후 1시 30분부터 장충체육관 특별법회장에서 열린다.

대한불교 조계종 종단 주최로 열리는 이번 법회는 역경원(원장=김성구)이 37년 동안 추진해왔던 한글대장경 총 318권 완간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예경식 △회향법회 △축하공연 등 3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다. 회향법회는 한글대장경을 부처님께 올리는 고행의식이 치러진다.

잘 보면 보입니다

16세기 중세 유럽을 휩쓸었던 마녀사냥은 수 천명의 죄없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21세기 한국사회의 보수언론은 또 다른 마녀사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씌운 색안경을 벗어버릴 때입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동대신문사

전공선택 위한 학점경쟁 치열

1지망 200명 탈락 ... '광역화' 오히려 선택제한

지난 달 마무리 된 전공배정 결과 학문간 서열화, 학점경쟁 등 대학입시체도의 부작용은 대학교육 현장에 그대로 나타났다. '고교 4학년의 또 다른 입시전쟁'에서 전공선택의 편중현상은 학과간의 서열을 불렀고 심지어 '전공재수생'이라는 신조어를 만든 것이다.

전공 결정을 준비했던 학생들은 "커트라인을 보며 원서를 내는 대입과 별다를 바 없다"며 "대학간 서열화처럼 학과간에도 서열화를 불러왔다"는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로 지난 2차 전공모집에서 행정학과 3.1대 1, 전자공학과 2.4대 1 등 인기학과들은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몇몇 학과에서 공개한 전공 커트라인은 학생들의 상당한 관심을

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1차에서 탈락했던 한 학생은 "1지망에서 탈락하게 되면 어떤 전공이 결정될 지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점에 맞춰 전공을 결정했다"며 "대부분의 학생이 2차가 마지막 기회인 만큼 안전지원을 한다"고 말했다.

전공경쟁이 치열한 만큼 학생들은 다양한 학문을 탐색하기 보다 원하는 전공 커트라인을 넘기 위해 학점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과대의 한 교수는 "학과 내 이른바 '족보'가 있거나 학점을 좋게 주는 교수들 정보를 얻기 위해 선배들을 찾아다니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다"며, "학문을 위한 공부라 아닌 시험을 위한 공부가 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번 2차 전공배정에서 전공을 결정한 유인선(행정2) 양은 "학점 때문에 비슷한 내용의 강의를 두 번 들은 적도 있다"며 "1차 전공결정 때 행정학과를 지원했지만 탈락해 지난 학기 학점에 대한 부담이 컸다"고 말했다. 이는 다양한 영역의 학문을 듣게 하자던 '광역화'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학점을 고려하지 않은 '소신지원형'의 학생들은 1지망 전공배정에 실패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올해만 해도 무려 200여명의 1지망 탈락자가 생겼고 이들은 대부분 2·3지망으로 배정 받은 전공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소신지원을

했다 1지망에서 탈락한 한 학생은 "원하는 학과를 배정 받지 못해 전공을 생각 중"이라며 "전공선택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모집단위 광역화가 오히려 선택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분명 모집단위광역화는 학과간 서열화를 없애고 교육의 다양성 제공을 통해 학생들의 전공선택 기회를 넓히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학과간 커트라인을 통한 서열화와 전공선택의 제한 등으로 나타나 는 현행 모집단위광역화의 부작용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학생들은 대학에서도 '성적순'으로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할 것이다.

김현정 기자
telle@dongguk.edu

상반기 통상 감사 결과발표

징계단위 대표자 해명대자보 요구

2001학년도 상반기 감사 결과, 총 감사특별위원회가 처음으로 학생대표자 7개 단과대의 3개 학생자치기구에 징계조치가 내려졌다. ▶(표) 참조

=유승우·아시아지역4) 산하 중앙 감사특별위원회가 처음으로 학생대표자들의 실명·자필 대자보를 요구했고, 이과대에는 추징금도 부과됐다.

<표>상반기 통상 감사

징계내용	단 위	징 계 사유
주의	불교대	경상비 지출 초과
	법과대	감사자료 제출시한 초과
	예술대	감사자료 제출 시한 초과
	경영대	감사자료 미제출
경고	이간강좌총학생회	감사자료 2회 미제출 경상비 지출 초과
	총학생회	감사자료 미제출 감사자료 제출 시한 초과 경상비 지출 초과
예산징지 2주 실명 대자보	이과대	감사자료 미제출 감사자료 제출 시한 초과 경상비 지출 초과 영수증 누락
		생명자원과학대
예산징지 무기한	공과대	감사 미시행

정산대 전용실습실 마련 1학년 실습환경 개선

정보산업대(이하 정산대) 전용 자유실습실이 정보문화관 P동 207호에 마련됐다.

지난 5월 정산대 학장과 정산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홍동철·컴공4, 이하 비대위)가 확정된 개선안에 따라 마련된 이번 실습실은 산업시스템공학과 전용 컴퓨터실을 1년 6개월간 정산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운영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P207에는 빌레이저가 설치됐고, 15대의 컴퓨터가 신형으로 교체됐다.

이와 관련해 홍동철 비대위원장은 "그동안 실습실이 부족했던 1학년 학생들의 불편함이 다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과대, 정치학교 열어 7일부터 명진관 세미나실

문과대 학생회(회장=이재광·철4)가 개강을 맞아 오는 7일부터 3일간 정치학교를 연다.

이번 정치학교는 문과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7일은 오후 6시, 8일과 9일은 오후 1시에 명진관 4층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강의주제는 △방학중에 열린 세미나 정리와 평가 △노학연대의 필요성 △교육투쟁 등이며, 수업은 토론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광 학생회장은 "이번 정치학교를 통해 학생들에게 정치적인 문제를 보다 쉽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원한 산악인 ... 박영석(체교 91졸) 동문이 지난달 30일 '허말리아 14좌 완등 기념식 및 귀국보고회'에서 본교 금장회장을 수여받았다. 금장회장 수여는 개교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허말리아 고봉 14좌 완등에 성공한 박영석 동문의 공로를 인정한 결정된 것이다.

불교계 추천 수시모집 확대실시

일반인도 지원 가능 ... 불교대 활성화 기대

2002학년도부터 불교계 추천 수시모집의 길이 넓어진다.

교무처(처장=신재호·전자공학) 학생선발실은 그동안 고3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수시모집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확대실시한다.

이번 모집은 25세 이상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대한불교조계종(이하 조계종) 포교원장과 교육원장, 조계종 산하 사찰 주지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전과를 통한 추천 입학자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불교계 추천을 통해 선발된 이들의 전과를 제한한다.

이와 관련해 학생선발실의 한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불교대의 위상이 강화되고 보다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모집원서는 오는 5일부터 4일간 학생선발실에서 접수받으며, 합격자는 오는 28일 본교 홈페이지와 학생선발실 게시판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가을, 우리들의 날개' 5일 범동국 개강잔치

2001학년도 2학기 개강을 맞아 오는 5일 총학생회는 범동국 개강잔치를 벌인다.

'가을, 우리들의 날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개강잔치는 오후 5시 동국관 앞에서 열리며 △문예 공연 △우리 과 최고 줄다리기 대회 △떡을 나눠 먹는 행사가 진행된다.

이와 관련해 김홍민 총학생회장은 "학생과 함께 하는 학생회를 만들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개강잔치를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정구 교수 구명운동 활발

학생 투쟁본부 결성·언론사 1인시위 등 벌여

강정구(사회학) 교수 구명을 위한 학생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총학생회(회장=김홍민·지교4), 대학원 총학생회(회장=이주환·사학과 박사과정), 강정구 교수 석방을 위한 사회학과 비상대책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강정구 교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동국대 투쟁본부'는 지난달 31일 결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앞서 사회학과 학생들은 일부 언론의 강교수에 대한 일방적인 보도 행태에 항의하는 의미로 지난달 29일부터 중앙일보를 포함한 언

론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강교수 구명을 위한 서명운동도 벌여나가고 있다.

또한 사회학과는 지난달 30일 교수와 학생이 모여 강정구 교수 사건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학생회는 원래 강교수에게 배정됐던 일부 수업에 대해 대체수업을 제안했고, 교수들도 "강사의 양해를 미리 구한다면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강교수는 지난달 31일 서울 구치소로 이송됐으며, 오늘(3일)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한다.

본교 홈페이지 서비스 추가제공

디자인과 학사정보 오늘(3일)부터 개편

본교 홈페이지의 디자인과 학사 행정정보가 오늘(3일)부터 개편된다. 이에 따라 키워드 하나로 홈페이지 전체를 검색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학사행정 정보란에 추가되는 서비스는 △강의실별 시간표 △학사달력 △답임지도교수 확인 등으로 특히 학사달력에는 날짜별 학내 행

사 정보가 제공된다. 이외에도 교수를 위한 △학과별 제책생·지도생 확인 △교수별 시간표 △강의평가결과와 조회 △강좌별 수강생 확인 등의 서비스가 추가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정보관리실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이름만 존재했던 서비스도 링크해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호 박영석 동문의 졸업년도를 93졸에서 91졸로, 생활협동조합 이사장을 김진철에서 허현택으로, 불교대학원장을 김윤길에서 서윤길로 정정합니다.

회전무대

친절합시다!

O...등록금 납부가 한창이던 지난 주, 직원의 행동에 학생들이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는데.

알아보니 등록금 분할 납부를 문의하고자 온 학생들을 점심시간이라며 돌려보내기 일쑤고 사적인 통화로 학생들을 기다리게 만들었다고. 이는 학생들을 배려하지는 못할망정 불청객으로 만든 행동이니.

이에 본 회전무대자 알 "불쾌해! 친절하지도 않아! 절망이야!"

시간표 천하

O... '컴퓨터의 활용과 실습' 첫 수업을 듣기 위해 강의실을 찾은 일부 학생들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는 데.

알아보니 시간표를 입력한 사람의 실수로 강의실 번호가 컴퓨터실이 아닌 교수연구실로 잘못 입력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럼에도 강의가 시작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하니.

이에 수업을 놓친 한 학생 알, "웨이! 시간표 네가 감히 나를 능멸하는 게냐!"

안티 박카스

O...개강과 함께 정보문화관 Q동 옥상이 무법천지가 되었는데.

알아보니 학생들이 개강파티를 하면서 담배꽂이를 아무데나 버리고 술에 취해 큰소리로 떠들기 때문이라고. 이는 곳곳에 붙어있는 금연표시와 고성방가를 자제해 달라는 협조문을 무색하게 하는 행동이니.

이에 본 회전무대자 알, "젊음, 지키고 싶은 것만 지킨다?!"

에어컷(Air cut)

O...강의실 에어컨은 빛 좋은 개살구?

에어컨이 설치된 일부 강의실 뒷자리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추위에 떠드는데.

알아보니 찬바람이 강의실 전체에 퍼지지 않아 뒷자리는 추위를 느낄 정도지만 앞에 앉은 학생들의 눈치 때문에 에어컨을 끌 수 없어서라고.

에어컨의 위치를 조정하거나 선풍기를 설치해 학생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이에 본 회전무대자 알, "에어컨 있는 강의실, 중간 자리 외 출입금지."

사회봉사 단위 모집

2001학년도 가을학기 사회봉사 단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대 상 : 재학생
- 신청서 접수기간 : 2001. 9. 12(수) ~ 9. 14(금)
- 봉사활동 기간 : 2001. 9. 17(월) ~ 2001. 11. 24(토)
* 봉사활동 내용 및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 학점인정 : 가을학기 기간 중 33시간이상(예비교육 포함) 봉사활동시 『교과목: 사회봉사, 이수구분: 자유선택, 1학점 Pass 인정』
* 봉사학점은 수강신청 제한 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졸업 이수 학점으로는 재학기간 중 2학점까지 인정함.
* 학점인정시기 : 2001학년도 2학기
* 참고사항 : 2002학년도 2월 졸업예정자 중 봉사학점 취득을 희망하는 학생은 반드시 가을학기에 신청하기 바람.
(겨울학기는 학점인정 불가)
- 접수처 : 동국참사람봉사단 (본관 3층 학생복지실 內 ☎ 2260-3049)
- 봉사활동대상단체 : 약 100여개 단체 (봉사활동내용 : 600여개 프로그램)
- 예 비 교 육 : 2001. 9. 15(토) 08:00~16:30 『경기도 광주 한사랑마을』
집결 장소: 본관 중앙당 08:00까지 시간 엄수

- 봉사대상단체와 봉사기간 및 시간을 본인이 자유롭게 선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최근 상당수의 기업에서는 사회봉사활동의 경험을 중요시하여 채용 과정에서 봉사활동 여부를 반영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동국참사람봉사단

전통사찰음식 조리강좌 수강생 모집

제3기 전통사찰음식 조리강좌 수강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강 사 : 선재스님 (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장)
- 교육기간 : 9월 12일 ~ 11월 28일(11회)
매주 수요일 10:00 ~ 12:00
- 진행방법 : 이론(30분) + 조리실습(매회 3~4가지) + 시식
- 수 강 료 : 70,000원 (재료비 포함)
- 접 수 : 9월 3일(월) ~ 11일(화)
- 대 상 : 동국인 남녀 누구나 (대학생, 대학원생, 교직원)
30명 (선착순 마감)
- 교육장소 : 학림관 조리실습실 (사범대 1층)
- 기타 문의 : 여학생실 ☎2260-3056

여 학생 실 · 가정 교육 과

수습기자 모집

취업大亂, 다양한 경험은 성공의 필수입니다. 영자신문사에서 만끽하십시오!

- 대상 : 01학년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01년 9월 14일 오후 6시까지
- 원서 교부 및 접수 장소 : 학생회관 지하 1층
영자신문사 동국포스트
- 문의 : (전화) 2260-3493
(홈페이지) http://dgpost.dongguk.ac.kr

동국대학교 영자신문사 The Dongguk Post

2001 평양민족통일대축전, 그 이후 **논단**

공동행사 의의 잠재운 분단 콤플렉스

최근 평양축전을 문제삼으면서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축전을 주관한 한 사람으로서 무엇이 잘못되어 참관자 7명이 구속되고 끝내는 통일부 장관의 사퇴까지 거론되는지 모르겠다. 정부의 정당한 승인을 받고 떠난 방북단이 돌아올 때는 소모적 색깔논쟁의 희생물이 되어 영문도 모른 채 범법자 집단이 됐다.

여론의 질타를 받는 쟁점 중 하나는 일부 방북단이 정부와의 약속을 위반하고 민족통일대축전 개막식에 참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강정구 교수가 만경대에서 "만경대 정신 이어받자"라고 방명록에 서명했다는 것이다.

돌출 행동 지나친 왜곡

평양은 김일성, 김정일을 찬양하는 조형물로 이루어진 도시이다. 개인 숭배 조형물이 없는 거리가 없다. 따라서 조국통일 3대 현장 기념탑 앞의 행사와 다른 평양 거리에서의 행사 구별은 무의미하다.

또한 현장탑 아래에서 관람한다는 것과 탑의 정신을 수용한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더구나 조국통일 3대현장의 하나로 국민들에게 가장 민감한 사항인 고려민

주연방제창립방안은 60년-78년-91년 3단계로 변해오면서 남북의 연합제와 내용이 거의 유사해졌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것은 6.15 남북공동선언 제2항에서도 당국 간에 이미 확인됐다. 그렇다면 이미 방북승인을 받은 참관자가 정부와의 방북 약속조건을 위반한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할 일은 되지만 남북교류협력법이나 국가보안법위반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만경대 정신은 북한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용어이고 통일독립정신으로 해석돼야 한다는 것이 일반 중론이다. 강정구 교수도 명백히 그런 뜻으로 해석했다. 그런데 만경대 정신에 대한 강 교수의 해석을 공안당국이 제멋대로 재단하는 것은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 것이다. 그리고 만경대 정신을 이어받자는 방명록 서명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할 정도로 실질적 법외침해를 가져오지도 않는다. 그런데 이를 문제삼고 국가보안법 제 7조 고문 찬양죄로 구속까지 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행동이다.

물론 일부 참관자가 정부와의 약속을 위반하고 신중하지 못한 돌출행동을 해서 잘못했다고 비호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일부 언론이 남북민간교류가 확산되는 과정 중

에 있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가지고 8.15 축전행사가 가져온 많은 성과물과 행사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민간 교류부분 값진 성과

민간참관자 336명이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최초로 평양에서 8.15 축전행사를 성사시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성과이다. 게다가 참관자 모두 북한사회를 객관적으로 알리고 하였고, 남한사회의 다양성을 그들에게 솔직하게 보여주려고 노력했다. 과거 북은 방북자에게 조형물 참관시 방명록 서명을 강요했고, 사진촬영도 매우 제한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북한 사람들도 친절하고 경계심이 없게 해주었다. 이번 축전에서 쌍방은 민간차원의 많은 부문에서 지속적인 화해, 협력의 구체적 합의를 확약한 큰 성과를 가져왔다고 자부하고 싶다.

그런데 일부 언론과 정치권이 8.15 방북단 문제의 이념적 왜곡과 정략적 정쟁화를 부추겨 일부 참관자에 대해 국가보안법에 의한 사법적 처리를 강요하고, 통일부 장관 사퇴까지 유도하고 있으니 매우 유감스럽다.

문제는 우리 내부에서 북을 보는 시각이다. 북한은 근본적으로 변한 것은 아니지만



이 장 희
한국의대 법학과 교수

그들 나름대로 엄청난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데, 우리 사회의 대북인식은 북의 변화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50년대의 냉전적 시각에 머물고 있다. 우리의 대북인식이 과거 한국 전쟁의 피해의식에만 사로잡혀 있다면, 민족문제는 한치 앞으로도 나가지 못할 것이다. 더욱 큰 과제는 분단의 시해를 받고 있는 남한 내 기독교 수호세력과 수구 냉전세력의 저항을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있다. 이는 평화 교육과 통일 교육을 통해 북에 대한 객관적 이해능력을 제고시키는 것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번 일 때문에 민간교류를 결코 제한시켜서는 안되며 오히려 더욱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단체도 보수세력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하여야 하며 통일교육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이번 8.15 축전행사 파문을 우리 모두가 보다 성숙된 자세를 갖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교육개혁 우수대학 선정사업의 과제

'개혁만능주의'가 낳은 형평성 논란

올해도 어김없이 교육개혁 추진 우수대학 선정 결과를 놓고 대학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지난달 18일 발표한 2001년 교육개혁 추진 우수대학 선정 결과 '교육과정 개발 및 특성화 분야(1분야)'는 46개 대학이 신청서를 제출한 가운데 학생수가 5천명 이상인 대학 중 본교를 비롯해 가톨릭대, 동의대, 인하대 등 7개 대학이 각각 선정됐다. 이에 대학별로 최저 3억5천만원에서 최고 6억5천만원까지 국고 보조금이 차등 배분된다. 따라서 본교는 △기초과학 및 수학교양과정 △공학교육인증제 △기초소양교과목 운영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대학별 자구노력 등을 인정받아 교육부에서 4억원의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교육개혁추진단 유병성 계장은 "대학규모와 여건이 비슷한 대학과의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함으로써 우리 대학의 선진적 개혁이미지와 동국인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특히 공과대와 정산대 교양필수과목 중 '기술과 사회', '공학 경제', '기술 보고서 작성 및 발표' 등은 인문·사회과학과 공학을 접목시켜 기본소양을 확대, 개발한 의의가 있고 실제로 취업 이후 실용적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교육부로부터 받는 재정지원은 학업지도교수제 실현이나 가상대학 사이버 강의 환경개편 등 교육환경 개선에 재투자될 전망이다.

교육개혁 추진 우수대학 선정 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96년부터 해마다 대학별 교육개혁 추진실적 및 계획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목적사업이다. 올해는 가능한 연속선정 대학을 배제하고 소규모 대학이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구분·평가하는 등 수혜의 폭을 넓히는데 중점을 두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까지 교육개혁 우수 단과대학이던 서강대 윤덕관 기획과장은 "이번에 선정된 대학들의 교육개혁 입안이 과연 우리대학보다 나은지 의구심이 든다"며 "교육개혁평가 기준이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대학들도 자체 특성화 개발이 어렵다"고 밝혔다.

사실상 교육개혁 우수대학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빨리 정부정책에 맞는 모범답안을 제출하느냐가 관건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 윤정일(교육학) 교수는 "확립적 평가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애초의 개혁이 지향하고 있는 대학의 다양화, 특성화라는 기본 목표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6년 동안 '위로부터의 교육개혁'을 표방한 교육개혁 우수대학 사업은 △평가 기준의 객관성과 형평성 문제 △수혜의 폭이 넓지 못한 점 △재정지원을 미끼로 지나친 간섭과 통제를 가하고 있다는 등의 비판을 받아왔다.

성균관대 김선종(교육학) 교수는 "교육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육개혁위원회의 기획능력과 교육행정가의 집행능력 등이 고양되어야 함은 물론 정치적 안정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니할하게도 교육개혁을 하면 할수

록 교육은 더욱 황폐화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교실붕괴에 이어 교육이민이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제는 교육 자체가 붕괴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한국 교유의 교육철학과 사상의 정립보다는 기능주의적인 무한경쟁논리의 확산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교육선진국이 되려면 백년대계를 무시하는 조급증을 버리고 우리 교유의 철학을 담은 교육개혁을 실현해야 한다.

김윤미 기자
kiza41@dongguk.edu

사설

족벌언론, 이대론 안된다

계강과 함께 교정이 점차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동악을 오가는 학생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거기다 만경대 방문록 사건으로 현재 구속돼 있는 본교 강정구(사회학) 교수의 석방을 외치는 목소리가 한층 분주함을 더하고 있다.

얼마 전 8.15 평양행사 도중 일어난 '돌출행동' 관련 기사들이 한동안 신문지면을 성난파도처럼 휩쓸더니 이제는 슬며시 꼬리를 내리고 잠잠해졌다. '또 언론이었다. 연일 대표단 일부의 사소한 실수를 잔뜩 부풀려 비난하고, 특정 정당이나 개인인사들의 반응만을 부각시키기에 바빴던 것이다. 게다가 불분명한 취재원의 취재내용을 부각시키고, 확인되지 않은 대표단의 발언과 행보까지, 이러한 족벌언론의 과장, 잘못된 보도는 언론으로서 지켜야 할 사실보도의 최소준행준과 시대적 양심마저 잃은 것이라 판단된다. 비단 이는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을 비롯한 전국언론노조와 한국기자협회, 각 시민단체에서 거대족벌언론의 자성을 촉구하며 발표한 성명에서도 알 수 있다.

최근 언론사 세무조사와 탈세 언론사주 구속에 따라 갈팡질팡 노여워하던 수구언론의 분풀이인가. '안보사업주의' '남남갈등'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가며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저해하는 족벌언론의 행위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불과 1년 전, 언론사 사장단이 방북했을 때 6.15 공동선언 이행에 함께 노력하고자 양측은 '남북언론합의문'을 만들었다. 그러나 지금 남한언론이 통일문제를 바라보는 기본태도는 당시의 합의문을 다시금 의아하게 만들고 있다.

남에 대한 비판은 촉각을 곤두세워 흥분하면서도 자기에 대한 비판은 용납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 언론의 현실이라고 한다. 비판의 대상보다는 비판의 주체로서만 안주하려는 족벌언론들을 더 이상 내버려두지 말자.

청소년 성범죄 확산 막아야

'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 명단 발표'는 며칠전 각 신문 1면을 장식했던 머릿기사이다. 이는 청소년 성범죄의 예방 및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처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청소년 성범죄 문제에 하나의 서명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얼마전, 법원은 기출한 17세의 소녀를 고시원에 데려가 동침한 후 현금 5만원과 식권 6장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무죄선고를 내렸다. 사회 전반적으로 성범죄 근절과 예방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섣불리 수감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더욱이 청소년 성 보호법의 입법취지를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법원은 이들이 만나기 전 성관계에 대한 의견교환이 없었던 점으로 미뤄 이들의 행위가 청소년 성 매매라기보다 이성간의 자유로운 만남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 무죄라는 말이다.

청소년 성 보호법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정의를 '청소년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 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하는 성교-유사성교행위'로 명시해 놓고 있다. 그렇다면 잘 곳이 없는 17세 가출소녀를 고시원으로 불러들인 행위 자체가 이미 성관계를 전제로 한 것으로 봐야 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행위를 '자유로운 이성간의 만남'으로 정의한다면 청소년 성 보호법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을 것이다. 유사범죄 사범들이 모두 돈을 주고받은 사실과 '사전 성관계 약속'을 부인할 경우 어떤 근거로 이들을 청소년 성범죄자라고 처벌할 수 있겠는가.

명확한 기준과 척도가 모호해지는 현 상태에 법조문 상 허점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주저 없이 개정작업에 나서야 한다. 우리의 미래, 우리의 꿈인 청소년들을 성범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명성황후 둘러싼 논쟁 ■

진정한 국모인가 망국의 주역인가



유홍중
소설가

“왕권의 정통성 있고 위기 속 구국외교 펼친 현명한 지도자”

경복궁에 가 본 사람이라면 아름다운 연못 한쪽에 석조 비석 하나가 있고, 거기에 ‘명성황후 조난지’라고 쓴 글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조선의 국모 명성황후는 지금부터 105년 전 그 석조 기념물이 세워진 왕궁 옥호루에서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 등 무장 흉도들에 의해 난폭하게 시해되었다. 그렇다면 명성황후가 1세기가 지난 오늘날까지 계속 재평가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단순히 비운의 황후라는 연민의 감정 때문인가 명성황후의 정치적 외교적 위상 때문인가.

필자가 ‘다큐멘터리 소설 명성황후’를 쓰게 된 것은 대원군과 일부 수구세력과 일본 및 친일파 세력들에 의해 역사적으로 크게 왜곡된 명성황후의 인간상과 업적을 올바르게 평가하고, 명성황후 시해를 주도한 일본 국가권력의 범죄를 추적하는데 의도가 있었다.

고종 초기에는 대원군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으므로 국가의 권력기반은 윤현군이 중심이었던 것이다. 그것은 왕권 체제의 조선의 정체성을 모독하는 일이나 다름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 무서운 대원군의 독재권력을 종식시키고 왕권을 회복하여 고종의 집권 기반을 구축한 것은 명성황후였다. 명성황후가 왕권의 정통성을 잇게 한 것은 큰 공적에 속한다.

대원군은 집권당시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를 거치면서 적화비를 통해 외세를 배격하는 한편 12만여 명의 천주교도들에 대한 무자비한 대학살을 자행했었다. 그러나 일본은 명치유신 이후 부국강병책을 통해 대륙의 경영에 나서면서 조선과의 외교관계 수립을 원했다. 그러나 대원군은 일본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함으로써 일본으로 하여금 조선 침략의 단서를 제공하는 계기를 만들고 말았다.

그로인해 일본은 245톤급 전투함 운양호를 비롯해서 전함 5척을 이끌고 강화도에 침공한 것이다. 그때 일본의 해군력은 최신 현대 장비와 무기를 보유한 전투함이 80여척이나 되었지만 조선의 관군은 사정거리 7백미터의 넓은 대포와 화승총을 갖고 있었으며 수군은 나뭇배 수준에 불과했다.

일본 군함이 영종도를 포격하면서 조선 수비대는 삼시간에 전멸 당했으며 일본의 서울 점령은 시간문제였다. 그것은 국난의 위기를 앞두고 고종과 명성황후의 집권과 개방정책은 불가피한 역사의 선택이었다.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후, 조선의 왕권을 무력화시키고 러시아의 조선개입을 강력히 견제하고 있었다. 실로 국가의 운명은 글자 그대로

“외척 세도정치 주력해 농민전쟁 초래한 국가 쇠락의 원인”



한철호
사범대 역사교육과 교수

요즘 텔레비전 사극에서 여인들의 기세가 드높다. 태조 왕건만이 홀로 분투하고 있을 뿐 명성황후·문정왕후 등 남정네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드는 ‘여인천하’가 전개되고 있다. 시청률을 최우선시하는 드라마에서 주인공인 여성들의 역할을 부각시키는 것에 대해 학문적 잣대를 들이대는 일은 무의미하게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드라마 속 인물들에 대한 흥미 위주의 묘사가 시청자들에게 자칫 그릇된 인물상과 역사관을 심어줄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앞서는 것은 단지 기우에 불과할까?

명성황후! ‘민비’로 더 잘 알려진 그는 역사상 ‘여걸’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그가 북중 태아의 장래를 위해 시아버지 흥선 대원군의 앞집을 떠막아서는 사극 속의 장면은 그야말로 압권이었다.

시아버지를 권좌에서 내쫓고 남편 고종의 친정(親政)을 가능케 한 그는 총명함과 탁월한 감각으로 정치력을 맘껏 발휘하였다. 오죽했으면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렸던 일본이 그를 칼로 난자한 뒤 시체마저 불태워버리는 만행을 저질렀겠는가.

이처럼 그의 삶 자체가 지닌 드라마틱한 요소 때문에 오페라 ‘명성황후’는 브로드웨이에서 호평을 받았고, 그 여세를 몰아 지금은 안방극장에서 인기몰이에 나서고 있다.



명성황후(明成皇后, 1851~96) 조선 제26대 고종의 비, 제27대 순종의 어머니. 본관은 여흥이며, 1851년 영의정 민치목의 외동딸로 태어나 1866년 16세에 흥선대원군 부인 민씨의 추천으로 왕비에 간택·책봉되었다. 대원군과 서로 견제하며 정치실권을 둘러싼 세력다툼을 벌였다. 1882년 임오군란으로 세도가 기울었으나 청의 힘을 빌려 대원군을 밀어내고 민씨정권을 수립했다. 1894년 대원군이 재등장하면서 친일파가 세력을 잡자 러시아에 접근해 일본세력의 추방을 기도했다. 1895년 일본공사 미우라가 부임하자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 친러정책을 강화, 같은 해 8월 20일 건청궁에 침입한 일본인 낭인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죽은 후 폐위되어 서인이 되었다가 10월 복호되고 1897년 명성이란 시호가 내려졌다. 그 해 11월 국장이 거행되었으며 능은 양주의 흥릉이다.



김경제 교수의
식물이야기 (1)

식물과 환경

지구상 식물은 생물이 존재할 수 있는 토대로서 근본을 형성하고 있는 필수 요인이다. 넓은 의미에서 인간의 먹거리인 공기와 물, 식품 모두가 식물 없이는 공급받을 수 없는 실정으로 다양한 식물이 있어야만 살아있는 모든 생물의 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인간은 식물을 5일간 먹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으나 물은 5일만 안 마셔도 삶을 유지할 수가 없고 공기는 5분간만 마시지 않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는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 필수요인인가를 잘 보여준다. 식물과 공기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아 공기는 식물의 중요한 기본생리작용에 직접 관여할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도 식물의 생육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다. 용량 비로 보면 질소(N₂)가 약79%, 산소(O₂)가 약21%, 탄산가스(CO₂)가 약0.03%로서 식물은 광합성 작용을 실시할 때 탄산가스를 필수요소로 사용하여 산소를 방출하게 되는 데 이는 대기중의 공기 조성을 자연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반대로 식물이나 동물은 호흡작용을 할 때 산소를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이 식물은 대부분 생산자(독립 영양자)로서 한사람이 하루에 1만~1.3리터를 마시는 공기를 깨끗하게 해주고 공기조성을 알맞게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생물의 생활이 계속될 수 있는 것이다.

인체구성요소의 70%가 물로서 생명의 젖줄기이며 근원적으로 물을 아끼면 용왕님이 복을 주며 나무를 아끼면 산신님이 복을 주고 쌀을 아끼면 부덕 조왕님이 복을 준다는 말이 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물을 물같이 사용하지 않고 물을 아끼며 절약하는 습관이 요구된다.

물은 일상생활에서는 물론 농업, 공업, 전력 생산 및 교통에도 필요하다. 쌀 1톤 생산에 물은 2천톤이 필요하고 종이 1톤 생산에 물은 14만 톤이 요구된다. 하루에 한 사람이 2L~2.4L의 물을 마셔야 하는데 반드시 깨끗한 물이나 육각수를 마셔야 한다.

그러나 지구는 인구 증가와 산업 발전으로 2006년에는 현재의 1.4배의 물이 요구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앞으로 물 전량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물은 유한한 자원으로 우리 인간이 지구상의 식물을 최대한 왕성하게 번식시켜 물의 저장고를 잘 보호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식물은 광합성 작용에 의하여 탄수화물을 생성하여 지구상 생물의 생성 및 성장의 근원인 영양소를 공급하는 생산자이다.

식물이 생산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상 환경조건인 온도, 수분, 광선 등이 적당하고 비배관리를 철저히 잘 실시해 주어야 함은 우리 인간의 책무인 것이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라도 모두 존재가치가 있고 유용한 것이지만 특별히 인간이 필요로 하여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식물을 작물이라고 한다. 또한 식물은 기형 일지라도 품종 개량을 실시하여 식물체의 일부만 내지 전부를 식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우리 인간은 이기적 유전자의 지나친 작용으로 인하여 식물체 일부만을 키우거나 많이 하는 육종방법을 채택하고, 최근에는 유전자를 조작하여 유전자 전환 식물(GMO)이 시판되고 있어 인체의 유해 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이타적 유전자 결핍으로 사람에게 보다 유익한 식물을 만들려고 연구를 계속하다 보니 반대로 유해한 식물이 출현하여 인간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MINT 세미나 다항관에서 진행

밀리미터와 나노기술 연구센터(소장=이진구·전자공학, 이하 MINT)가 주최하는 학술 세미나가 열린다. 'Electrons in Quantum Structures and Nanotechnology'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MINT의 김미라 박사가 연사로 참석하며 오는 6일 오후 4시에 다항관 세미나실에서 진행된다.

제9차 HRD 정책포럼 개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강무섭)의 주관으로 제9차 HRD 정책포럼이 개최된다. 이번 포럼은 오는 7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된다. 민간 부문의 인적자원개발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리며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문의 3485-5050

한국여성학회 학술발표회 열리

한국여성학회(회장=조무석)가 주관하는 제3차 월례학술발표회가 열린다. '여자 박사의 위기와 대응'이라는 주제로 오는 8일 동덕여자대학교에서 진행된다. 문의 3272-0492

한국자동차공학회 워크숍

오는 14일부터 이틀간 한국자동차공학회(회장=한동철)가 주최하는 Workshop이 열린다. 부산 전시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리며 기술리엔진, 디젤엔진, 연료 및 윤활유부문을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564-3971

다산 정약용 친필서신 발견

편지 한장으로 역사속 지성인의 발자취를 따라 학문적 성격의 편지내용 ... 보다 정확한 정약용 연구토대 마련

조선 후기 실학자 다산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쓴 편지 한 장이 발견되었다. 이 편지는 본교 임기중(국문학) 교수가 지난 98년 최초 인수해 소장하고 있던 것이다. 이에 임기중 교수를 만나 편지 발견의 의의와 사료적 가치에 대해서 들어보았다.

- 정약용 친필 편지가 발견된 것의 의의는 무엇인가.

= 귀양지에서 유배된 정약용에게 외부와의 유일한 의사소통수단은 '편지' 뿐이었다. 학유, 학연 등 두 아들의 교육을 위해 사용되기도 했던 정약용의 편지는 신빙성있는 내용보다는 학문적 성격을 띠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는 시간제 문학에 학문의 영역을 도입해, 새로운 형식과 내용을 창조했다는 점에서 국문학사적 의의를 갖는다.

- 편지에 담겨 있는 내용은 어떤 것인지.

= 전남 강진에서 책을 쓰며 유배생활을 한 정약용은 1816년 흑산도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

던 형님 정약전의 죽음으로 실의에 빠진다. 이때 신영노라는 젊은이가 찾아오자 사후를 생각, 신영노에게 수백 권의 저서를 맡기며 세상에 알릴 것을 당부한다. 여기서 평생 저술활동을 통해 기록한 저서가, 세상에 나가 사람들을 위해 이롭게 쓰이기를 바란 정약용의 인품이 나타난다.

편지는 신영노의 아버지와 알게 된 사연, 유배지에서 쓴 책을 맡기기로 결심한 동기, 저서 목록, 신영노에게 전하는 당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정약용이 다른 아닌 신영노에게 저서를 남긴 이유는.

= 당시 정약용은 이데올로기 논쟁에 휘말린 '사상범'이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는 가까이 하기 두려운 존재였다. 이런 때에 학문과 인품에 대한 존경심만으로 정약용을 찾아 온 신영노는 품격이 높고 총명한 젊은이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정약용은 신영노에게 전해준 편지에 그의 인품과 자질을 고려했을 때 믿음직스럽고, 그가 정약

용의 학문세계를 알아 볼 만한 안목을 지니고 있기에 저서를 남기기로 했다고 쓰고 있다. 이것은 학문적으로 원숙한 학자가 잠재성 있는 후진에게 자신의 학문 세계를 계승해 줄 것을 부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편지가 갖는 사료적 가치와 학술계에 끼칠 영향은.

= 이 편지는 정약용이 유배생활 동안 지은 저서 목록과 저술 연대를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한 사료 중 하나이다. 위당 정인보가 '신동야' 8월호(1935)에서 편지의 필사본에 대해 언급한 일이 있지만, 일본이 발견되면서 필사본에는 오탈자가 많이 있었음이 밝혀졌다.

특히 국가방위에 관한 연구서 '비어고'와 주제의 예제를 정리한 '춘추고정'의 정확한 저술 연대를 알게 된 것은 큰 수확이다. 앞으로 정약용에 대한 연구가 보다 정확한 고증을 토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임기중
문과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이수경 기자
papaya@dongguk.edu

주5일 근무제로 주말이 달라진다

내년 7월 부분 시행 ... 문화시설 투자 선행되어야

'Thanks God, It's Friday'
미국인이 즐겨 쓰는 이 말에는 '만세, 금요일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런 그들에게 '노동 시간 세계 7위'라는 오명을 덮어쓰고 있는 한국은 이해하지 못할 나라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얼마전 일간지를 장식한 '내년 7월 노동 시간 단축을 통한 주5일 근무제가 공무원, 금융·보험업, 대기업부터 먼저 시행될 것'이라는 소식은 새로운 주말문화를 예고하고 있다.

사실 주5일 근무제 시행이 근로문화와 국민의 여가생활을 비껴놓을 것임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를 내내 TV보거나 낮잠자기로 보낸 주말은 가족과 함께 리조트 단지나 주말농원을 찾는 시간으로 채워진다. 즉, 자녀들을 위한 전통문화탐구, 유적지 탐사, 생태계 관찰 등 문화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면서 가족 중심의 체험관광이 고개를 들게 된다는 말이다.

여기서 반가운 비명을 지른 곳은 바로 제주. 경주를 비롯한 유명 관광도시다. 주말을 이용한 여행객 관광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최대의 갈림길로 작용하던 관광 비수기 문제가 시원스럽게 해결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문화·학습형의 여가활동은 콘서트, 연극, 뮤지컬 등 공연예술에 대한 소비욕구를 증가시키게 된다.

이처럼 주5일 근무시대의 새로운 풍속도는 자기계발 열풍으로도 나타난다. 취미생활을 하더라도 깊숙이 빠져들어서 다양한 분야에서 '프로급 아마추어'들이 쏟아져 나오게 된다는 말이다. 신문도 주중의 딱딱한 정치, 경제, 사회 뉴스보다 정보중심의 말랑말랑한 주말판이 인기를 끌게 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대학사회는 주5일 수업제를 통해 가장 자유로운 취미생활과 여가활동을 일찌감치 누리고 있다. 만약 대학생들이 중·고등학교와 같이 주5일 수업제를 했다면 과연 동아리 활동은



대학문화의 꽃이 될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하지만 주5일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대학생들의 여론은 싸다르다.

본교 호텔경영학과에 재학중인 한은혜 양은 "우리는 주5일 수업을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피부로 와 닿는 느낌은 없지만 관광산업의 발전이 대학생의 취업전선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고 말한다.

앞으로 닦새만 일하는 짝같은 세상이 물러온다. 샐러리맨은 매주 이틀씩 쉬 수 있어서 좋고, 아이들은 토요일 수업이 없어 신이 난다. 주부들도 남편이 일찍 들어와 집안 일을 도와주니까 행복하기만 하다.

그렇다면 우리도 금요일에 만세를 부를 수 있을

것인가. 안타깝게도 지금은 주5일 근무제 시행을 박수만 치면서 환영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 모든 국민이 만족할 수 있고,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문화공간과 관광 시설 마련 투자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많은 난간에 부딪친 주5일 근무제 시행을 옥보이지 않게 하는 첫 번째 노력이 될 것이다.

문화부 culture@dongguk.edu

달하나 천강에

태극기를 찾아서



강 문 호
인문대
국사학과 교수

인간의 특징 중 하나는 상징화를 통해 자신을 표현한다는 것이다. 작게는 개인에서부터 넓게는 모든 대소 사회집단들이 자신들의 상징물을 갖고 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旗)일 것이다. 이를 기는 그 집단의 영욕을 대변하기도 한다. 국제시합에서 우승한 선수들이 자국기를 몸에 두르고 환호하는 모습은 우리를 얼마나 감동시키는가.

얼마전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와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으로 한동안 우리 사회가 시끄러웠다. 그때 우리 태극기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태극기는 바로 일본과의 관계를 기화로 제작해 우리나라를 상징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8월 15일 광복절에 폭주족들이 도로변 전신주에 꽃아 놓은 태극기를 빼돌고 서울 시내를 질주하다 사고를 냈다는 기사는 우리를 압담하게 만든다. 조사에 따르면 국경일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가정이 40% 정도에 불과하고 태극기의 형태나마 제대로 그릴 수 있는 대학생은 전체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아주 오래 전 지역이지만 어릴 때 태극기의 태극문양이나 4괘의 조화 및 그 이미지가 주는 신비함 때문에 타 국기들보다 훨씬 아름답다는 느낌을 가졌던 적이 있다. 그리고 동시에 자국기가 그려진 천으로 옷을 만들어 입거나 포대 등 각종 생활용품을 만들어 쓰는 외국인들을 보며 기이한 느낌을 받

았던 적도 있다. 국기는 무조건 존귀한 것, 성스러운 것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으리라. 이러한 생각은 우리의 전통적 정치의식이야 사회의식 때문이었을까? 급속 다양한 사회적 변화로 말미암은 결과이겠지만 갈수록 태극기와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태극기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며, 외국과의 개인적 관계에서는 나를 웅변한다. 따라서 태극기의 존엄성을 되새기며 그 형태나 태극기와 관계된 제반 의식 등을 정리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마침 며칠전 일간지에서 1882년 수신사 일행이 일본을 방문할 당시에 박영효가 제작한 것이 틀림없어 보이는 현존 최고(最古)의 태극기가 미국에서 발견되었다는 보도를 접했다. 태극기의 제작 배경이나 형태, 변화 과정 등이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는 까닭은 대한제국 말기 및 일제 강점기 우리 역사의 암울한 면을 대변하는 것이리라. 이번 발견으로 태극기의 역사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질지 기대해 본다.

짚은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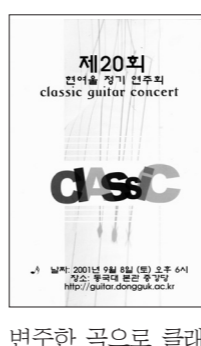
손짓 사랑회 공연

서울캠 수화 동아리 '손짓 사랑회'가 새학기 맞이 수화공연을 펼친다.

수화기초반 모임을 위한 이번 공연은 여행스케치의 '웨이 느낌'이 좋아'를 포함해 총 6곡을 수화로 선보일 계획이다. 경쾌한 음악에 맞춰 움직이는 손놀림에서 장애인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발견하고 수화에 대한 인식도 새로이 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오늘(3일)부터 5일까지, 오후 12시, 불상 앞에서. 문의 016-664-3102(김영미)

현여울 정기 연주회



서울캠 클래식 기타 동아리 '현여울'이 스무번째 정기 연주회를 갖는다.

비틀즈의 'Yesterday'와 같이 널리 알려진 곡을 위주로 한 이번 연주회는 예년과 달리 재학생과 졸업생이 함께 해 보다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특히 'With-Air'는 민요 '아리랑'을 변주한 곡으로 클래식 기타 선율과 우리 가락이 한데 어우러져 독특한 하모니를 만들어 낸다.

오는 8일 오후 6시, 본관 중앙당에서. 문의 011-9937-7446(장소영)

아리랑 홍보 노래마당

서울캠 민중노래대 '아리랑'이 동아리 홍보를 위한 동양 거리 공연을 연다.

이번 공연에서는 조국과 청춘의 '날개', 천지인의 '희망을 위하여' 등 모두 6곡의 민중가요를 소개하고, 대학생의 시각에서 본 통일과 노동자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에 대한 뜻을 발견하고 수화에 대한 인식도 새로이 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오는 7일 오후 1시, 불상 앞에서. 문의 016-9277-3122(신홍철)

국악과 대금발표회

경주캠 국악과가 첫 번째 대금발표회를 가진다.

대취타를 시작으로 열리는 이번 발표회에서는 시나위와 판소리의 특징을 고루 갖춘 '산조'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영화 '은혜나무 침대'의 삽입음악을 국악과 오케스트라로 절묘하게 재현한 것이 특색이다.

대금소리를 통해 부처님을 느낄 수 있는 감동의 시간이 될 것이다.

오는 10일 오후 7시30분, 서라벌 문화회관에서. 문의 (054) 770-2509



남북문화, 뭉치면 '통일'

우리네 속담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큰 일이라도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뜻의 이 속담은 통일을 이야기할 때 자주 거론되곤 한다. 그도 그럴 것이 통일은 간절한 '우리의 소원'인 만큼 보다 차근차근, 작은 것에서부터 계획적으로 이뤄가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7월 인사동에 문을 연 '평양 갤러리'는 그런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북한 정보를 제공하는 벤처기업 조선 인터넷(www.dprk.com)이 기획한 평양 갤러리는 농수산물을 비롯 북한의 일상생활용품부터 도자기와 수예품 등 다양한 예술품을 전시하고 판매한다. 특히 '백두산 들쭉술', '백로술' 등 북한을 대표한다는 여러 술을 접할 수 있으며, 유홍준 교수가 '북한문화유산답사기'에서 세계에 자랑할만한 현대 예술장르로 인정한 북한 수예의 정교한 아름다움을 엿볼 수 있다.

그밖에도 개성 고려인삼으로 만든 화장품 '살결물'을 포함해 '검과자', '곰뽕약술' 등 신기한 북한상품을 다량 구비하고 있어 멀게만 여겨졌던 북한 주민들의 생활과 문화에 한 발짝 다가가게 한다.

이와 관련해 조선 인터넷 김원국 부장은 "이북에 고향을 둔 실학민이나 예술가, 대학생 등 다양한 계층이 관심을 보인다"며 "남북 문화가 한데 어우러진 통일문화 형성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한다.

조선 인터넷은 이외에도 '평양 카페' 개점을 준비 중이다. 평양 갤러리가 북한 문화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평양 카페는 북한의 대중가요와 토종음식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휘파람'과 'DMZ', '615' 등 통일관련 각테일을 선보인다. 또한 매일 15일 민방위 날을 평화의 날로 지정해 통일사이엔 울리기와

같은 이벤트를 기획하는 등 분단의 아픔을 통일과 관련한 재미있는 문화로 탈바꿈시킨다. 이것은 통일이 거창한 계획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에서 시작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6.15 공동선언 이후 통일을 향한 열망이 사회 전반에 걸쳐 강하게 일고 있다. 평양을 모델로 한 도시경영 시뮬레이션이 등장하고, 서울 한복판에는 평양 갤러리가 들어섰다. 통일은 이제 더 이상 남북 고위급 회담 때나 나오는 말이 아닌, 우리 일상의 문화가 되어가고 있다.

앞으로는 그 통일문화를 가꾸는 것에 힘써야 할 것이다. 작가 황석영씨의 '사람이 살고있었네'란 말처럼 북에 살고 있는 나와 같은, 우리 민족과 함께 말이다.

이성희 기자 mong2@dongguk.edu

학복위 가을 특강 & 교양강좌

● 어학특강

- 개강 : 9월 17일(월)
- 공개강의 및 환불기간 : 9월 17일(월)~19일(수)
 - * 공개강의 기간동안은 수강증을 끊지 않으셔도 수업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수업을 들어보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위의 기간동안은 환불이 가능합니다. 공개강의 시간은 정규 수업시간과 동일합니다. 모든 과목의 수강료는 교재비가 제외한 가격이며 교재는 따로 구입하셔야 합니다. (구내서점 10% 할인)
- 접수 : 9월 3일(월)~9월 21일(금), 접수장소는 구내서점 및 학생복지위원회(다량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9월 3일(월) 이후 학생복지위원회와 학내 곳곳에 비치되어있는 포스터와 자료집을 참고하시거나, 학생복지위원회로 문의하세요. ☎ 2260-3681, 2276-1950

강좌명	강의시간	강사명	수강료	강의기간	강의실	기타
TOEIC 티미네이터	오후 4:00 ~ 5:20	박혜숙	30,000원	8주(화~금)	J201	모의토익 1회 실시
ULS TOEIC	오후 4:00 ~ 5:20	이영상	50,000원	8주(월~목)	J404	50명 정원, 모의토익 3회 실시
이익훈 TOEIC	오후 6:00 ~ 7:20	이혜리	50,000원	10주(월~금)	J201	모의토익 1회 실시
이카테이 신영향 TOEFL	오후 6:00 ~ 7:20	정주현	30,000원	8주(월~목)	J404	모의 토크 CBT 2회 무료 제공

● 교양강좌

논과 들이 무리익듯이 우리의 마음과 머리도 풍성해지는 계절, 가을입니다. 함께 이야기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물론 무료강좌입니다. 대학이라는 공간 안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활짝 열고 좋은 시간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주 제	강사 및 초대손님	시 간	장 소
교 육	영어청취 & 토익 LC 고득점 학습법	이익훈 선생님 (現 이익훈 어학원장)	오후 1시	중앙당
사 회	언론개혁: 우리 언론의 나아가야 할 방향	손석춘 기자 (現 한겨레신문 여론매체부장)	오후 1시	다량관 세미나실
문학 / 문화	시와 노래가 함께 하는 특별: 나팔꽃(이시산, 홍순관, 이수진), 정호승 시인, 신경림 시인		오후 2시	중앙당

학생복지위원회

2001 한가위 한마당 (고향 가는 길)

● 한가위 한마당 - 9월 27일 중앙도서관 앞

- 동약잔치 하나. 이른 10시~4시 <보물 찾기 대회>
 - 팔정도 주변에 숨겨진 100개의 보물을 찾으시고 오후 4시에 상점으로 교환하세요!
 - 동약잔치 두울. 늦은 12시 <제기차기 대회>
 - 누가누가 오래오래 밟히고 신나게 제기를 치는지 한번 겨루어 보자구요!
 - 동약잔치 셋. 늦은 1시 <세발 자전거 타기 대회>
 - 남녀노소 불문하고 간단히 접어서 달려봐요! 다리가 짧은 사람이 조금은 유리하겠죠?
 - 동약잔치 네. 늦은 2시 <백자차 함미당>
 - 여러가지 종류의 떡과 우리 음료를 나누어 드립니다. (동국관은 늦은 5시 30분부터)
 - 동약잔치 다섯. 늦은 3시 <줄다리기 겨루기 대회>
 - 여자 10명과 남자 10명으로 이루어진 팀을 결성해서 힘차게 당기면 식권 100장이 와르르~
- * 이외에도 **상설놀이판**(널뛰기, 제기차기, 투호, 팽이들리기...)과 **우리 물품점**(우리옷, 이복술, 우리차...)가 준비되어 있으니 동약 학우들 모두 맘껏 즐기다 가세요.
- * 모든 경기의 신청은 당일 오후 12시까지 학생복지위원회로 하시면 됩니다. (2260-3681)

● 한가위 "고향 가는 길" - 9월 28일 출발 (도시락 / 기념품 제공)

<귀향 버스 타기>

- 9월 28일 이른 10시에 대운동장에서 출발합니다.
- 노선은 아래와 같으며 노선에 관계없이 5,000원이면 우리의 고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 노선 : <지동> 부산 / 울산 / 마산 / 진주 / 대구 / 포항 / 광주 / 전주 <경유> 충주-문경-상주, 청주-대전-논산, 당진-서산-예산-홍성-보령-서천, 익산-군산 <전주>-정읍-고창, <전주>-임실-남원, 창원-진해, 창원-밀양-진해, 거창-진주-사천, 원주-강릉-동해-삼척, 제천-영주-안동, 나주-무안-목포, 순천-여수, 순천-별교-고흥, 영동-김천-구미, 영천-포항, 경주-울산

<귀향 비행기타기 (제주도행)>

- 9월 28일 김포공항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비행기는 10월 4일 제주도 공항에서 출발합니다.
- 왕복노선으로만 판매합니다. 그리고 가격은 25% 할인된 가격으로 124,500원입니다.

<귀향 버스와 비행기를 접수하시려면...>

- 9월 12일(수)부터 19일(수)까지 중앙도서관 앞에서 받습니다. (환불 및 교환은 9월 17일~21일)
- 접수는 오전 11시~오후 3시까지만 받습니다. 이외의 시간은 절대 접수받지 않습니다.
- 또한 9월 12일~14일에는 오후 5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동국관에서도 접수를 받습니다.

생활협동조합 / 학생복지위원회

매체비평

도서 편

꾼, 장이

“토종지기의
파란만장한 삶이
사진과 활자로 살아나다”



우리 토종 문화의 맥을 잇는 이들의 이야기, '꾼'과 '장이'.

최근 자신들을 있게 해준 과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획기적으로 변하였기 때문일까. 출판자본과 미디어는 지분화중심주의의 기치 아래 들끓어 대고 있는데 그러다보니 어떤 업에 대한 신비화, 개인에 대한 지나친 미화, 정도를 넘어설 때는 영웅주의적인 찬미로까지 치달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실천문화사에서 엮어낸 '사라져가는 토종문화를 찾아서'라는 부제가 붙은 '꾼'과 '장이'는 거창한 표방과는 달리 그러한 시류로부터 과감히 벗어나 있다. 과거의 문화를 바라보는 각도가 다르다. 이 책의 주인공들은 심배마니, 약초꾼, 독살어부, 해녀, 남사당 앞좌, 대장장이, 짚신장이, 엿할머니, 쪽물장이, 명주장이. 이렇게만 짚어보아도 이 책이 어떤 사람들

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확연하다. 이 책은 문화하면 보통 사람들이 떠올리기 마련인 인간문화재급 또는 명인들에게서 문화를 찾아내려 하지 않는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주름투성이 얼굴과 흰 머리카락 울음 사이에서, 그리고 그들의 발품 흔적에서, 문화를 찾아내려고 한다. 이 책의 주인공들은 대개 나이가 많다. 석이꾼 박성진씨와 쪽물장이 정관체씨를 제외하고는 다들 이순(耳順)이 넘어 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인생이라는 파란만장을 듣는 느낌이다. 주인공들은 대부분 먹고살기 위해 그 업을 택했다. 그리고 그들의 젊은날에는 그 업이 생계의 보장이 되어주었다. 나아가 그 업으로 자식들을 키우고 가르쳤다. 그러는 동안 시대는 변하였고 경제 활

동의 양상도 당연히 굴곡이 많았다. 이제 그들의 업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생산적인 기능을 상실했다. 하지만 경제활동의 은퇴기에 다달아 있는 주인공들은 자신의 인생을 있게 한 그 업의 마지막을 장식할 운명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다. (주인공들 중에는 인간문화재로 지정된 분들도 있고, 최근의 지분화중심주의의 시류 덕으로 유명해지신 분들도 있다. 하지만 극소수이다) 이 책은 그분들에 대한 서술서술한 이야기이다. 이 책처럼 글과 사진(400여컷)이 행복하게 어울려 있는 경우도 드물 듯 싶다. 문장은 장이와 꾀들의 현재에서 담담하게 출발한다. 그들의 농익은 작업현장을 취재하면서 그들의 지난날을 듣는다. 시인이기도 한 지은이는 주관적인 판단과 감정을

가능한 배제하면서도, 주인공들의 육성이 우리나라 현대사의 은유로 필적될 듯이 만든다. 사진은 문장과 나란히 곁으며, 주인공들의 표정에서, 손놀림에서 그분들의 과거까지도 잡아낸다. 읽고 보다보면 바로 우리들의 현재를 있게 한 어른들의 지난날이 지나는 가치의 소중함을 절로 느끼게 된다. 아울러 이 책에 소개되어 있는 자세한 지식들은 가까이 놓고 때때로 참고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좋은 소장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닐 것이다. 아쉬운 점을 찾을 생각보다는 사라져가는 것들이 진실로 사라지기 전에 한번쯤 보듬고 깨어나 보려는 젊은 노력에 대하여 박수부터 쳐주고 싶은 책이다.

김종광 소설가

‘문화식민지’로 전락하다

한 나라의 문화는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대변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갈수록 문화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그 나라의 특색있고 개성적인 문화를 창출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새 외국 문화에 길들여져 우리 것보다 외국 문화의 것이 더욱 우월하다고 생각하며, 더욱 세련된 것인양 치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문화가 바탕이 되지 않은 기층에 무차별적으로 수용한 외국문화는 우리 문화를 퇴색시키고 황폐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된다.

이에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문화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우리 문화를 살리고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3회에 걸쳐 '우리문화 살리기' 기획을 준비했다.

1. '문화식민지'로 전락하다
2. 일본 문화가 몰려온다
3. 우리 문화는 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 그러대로 유유자적 살아가다가 거대한 서구의 힘, 괴력난신 같은 힘에 압도당하여 그만 문화적 정체성을 상실하고 우울증과 분열증, 자기 변명과 도피 같은 고단한 삶에 빠져들고 말았다.

때로는 사대주의에 젖어들고, 우월주의에 빠져 백여년을 용케도 버텼었다. 급기야 문물 활짝 열 수밖에 없었던 조선 후기의

에도 주인은 없었다. 문명개화와 사회진화를 좌우명 삼아 백인문화의 우월함을 내세우며 밀어닥쳤을 때, 동아시아는 동도서기(東道西器)와 중체서용(中體西用), 화혼양재(和魂洋材)라는 급조된 무기로 대응전선을 구축하였으나 실패로 돌아갔다. 지난 100년에 관한 철저한 반성 없이, 변화하는 세계관과 새롭게 창조되는 반역의 미학을 인정할 없이 어떤 21세기의 희망이 가능하겠는가.

'손님'에 의해 부인당하다

우리문화는 지난 한 세기 전에 서구와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잔인하게 '강간'당하고 말았다. 서구문명은 '문명'과 '야만'이란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재단하였다. 민족종교는 무지몽매한 미신으로 내몰리고 민족의학은 한약방으로 전락했다. 민족 음악은 천대받고 민족의상은 무시당하였다. 그 결과, 양풍이 휩쓸었다. 일본제국주의는 이 같은 사태진전을 더욱 노골화시켰다. 해방은 되었으나 민족의 분단은 남북이 상이한 체제 속에서 다른 문화를 가구도록 요구했다. 한국전쟁으로 인한 양풍의 파도는 본격적인 것이었다. 1960년대 증산수출건설이란 속도전시대, 산업시대문화와 농촌문화가 병존하면서 우리문화가 급격히 사라지던 소멸의 시대도 겪었다.

개항기, 우리는 밀어닥친 낯선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 바빴으며, 지난 100년 동안 내내 '손님'의 시대'를 보내야만 했다. 쫓겨난 주인은 비바람치는 처마 끝에 서있고, 손님이 오히려 희화낙낙하는 여처구니 없는 일을 수없이 겪었다. 어디



미국인의 국내 여행 가상시나리오 “Where is 한국?”

미국 로스앤젤레스 토박이로 자란 아메. 그는 LA 곳곳에서 만난 한국 사람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는, 반만년의 뿌리깊은 나라라는 한국이 어떤 곳인지 너무 궁금했다. 아메는 직접 한국을 느끼고 그 문화를 체험하기로 결심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아메는 서울로 가기 위해 택시에 올랐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 어쩌나 싶어 포켓용 회화책을 준비했지만, 택시 운전기사는 그에게 영어로 이야기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다. 영어를 못하는 것이 무척이나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히며 더듬거리는 영어로 아메의 목적지를 묻는 것이다. '한국사람이 자기 모국어도 아닌 영어를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텐데...' 종로에 도착한 아메. 그는 종로에서 서울로 파견근무를 나와있는 절친한 친구 리카를 만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어디서나 눈에 띄는 금발머리의 리카를 찾지 못한 채, 종로에는 리카만큼이나 노란 머리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다. '한국 사람들은 원래 흑발 아니었나?' 30여분을 헤맨 끝에 만난 아메와 리카. 그들은 허기진 배도 채우고 그동안 쌓인 이야기도 나눌 겸 식당을 찾았다. 한국의 전통적인 음식을 먹고 싶었던

아메였지만 사방에 널려있는 패스트푸드점이나 그럴 듯한 양식 레스토랑, 일식집과는 달리 한정식집은 눈에 띄지 않았다. '한국 사람들은 쌀이 주식 아니었나?' 결국 햄버거로 끼니를 때운 아메와 리카는 근처 찻집에 들어가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 차라도 한국 전통차를 마시리라 다짐한 아메. 그러나 그가 받아든 메뉴판에는 온갖 종류의 커피와 레몬에이드, 체리애이드 등만 빼곡이 적혀 있을 뿐이었다. '미국과 다를 게 뭐야? 여기 한국 맛이야? 그래, 제대로 한국관광 코스를 밟으면 뭔가 다를거야.' 리카와 헤어져 '서울 시티투어 버스'에 오른 아메.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출발한 버스는 덕수궁, 남대문 시장 등을 지나며 과거와 현재의 한국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아메는 또다시 의문이 생겼다. 서울의 명소를 관광할 수 있게 방문지를 찢다는 시티투어버스인데, 그 코스 중에 미군용산기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게다가 한국 사람보다 외국인인 더 많고 한국어보다 영어를 쓰는 사람이 더 많은, 한국의 거리라기 보다 미국의 한 거리를 옮겨 놓은 듯한 이태원까지. '도대체 그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던 한국의 문화는 무엇이란 말인가.' 의문에 의문을 더한 채 버스에서 내린 아메. 그는 더이상 한국을 여행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가 보고 느끼고 체험한 모든 상황들은 더이상 한국의 문화가 아니었다. 미국 내 하나의 도시를 여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뿐이었다.

제국주의 문화 ≥ 우리 문화

눈썹, 코, 입술 심지어 배꼽까지 한 피어싱, 칼라렌즈를 낀 파란색 눈동자, 성조기가 그려진 티셔츠에 나이기 운동화를 신은 이들, 바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젊은이들의 모습이다. 밥대신 맥도날드 햄버거와 코카콜라를 선호하고, 마이클잭슨과 힙합, 테크노에 어느새 익숙해져버린 우리는 서구의, 특히 미국의 문화와 닮은꼴 문화 향유하고 있다. 한국 안에 한국이 아닌 곳, 압구정동에 가면 '미국인 같은' 한국인들과 '미국을 닮아 있는'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다. 레게머리를 하고 힙합을 추는 이들, 외국에서 외국문화에 몰두해 온 유학생들, 그들은 한국어보다 영어를 더 자연스럽게 내뱉는다. 또한 '영어공용화' 이야기를 하며 우리 언어의 중요성은 까마득히 잊어간다.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성형외과들은 서구 미인형을 양산하며 성형문화를 만들어 내고, '미인대회'는 그런 서구화 된 미가 최고라고 추켜세운다. 명품문화를 만들어낸 해외 명품관도 수없이 들어서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람들은 명품의 가치가 곧 자기의 가치를 드러낸다는 생각으로 호화스런 명품을 구입한다. 그 뿐 아니다. 식문화에서부터 오락, 놀이문화까지, 서구적으로 인태리어 된 공간에서 서구적으로 즐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 버렸다. 할리우드 영화를 보며 아무런 자각없이 수용된 미국식 사고와 생활 방식은 또 어떠한가. 장대한 스케일과 오락성을 겸비했다는 이유로 할리우드 영화에 중독된 우리들. 하지만 그 속에 문화제국주의 전락이 숨어 있다는 사실은 잘 인지하지 못한다. 미국은 영화를 통해 그들의 위대함을 정당화하고 이를 자연스럽게 주입시킨다. 미국적 영웅을 제시하며 영웅이 미국임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디즈니 만화 또한 그와 같은 의도를 지닌 미국의 제국주의 문화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이미 서구, 미국의 문화 포로, '문화식민지'가 되어 버린 현실. 서구적 생활방식에 몰두해 개인주의를 내세우고, 우리나라 교유의 정신문화마저 잃어버리는 건 아닐지 생각해 볼 일이다. (리) hviolet@dongguk.edu

메아리 한탕주의

▲한번에 많은 것을 얻어보려는 욕심이 너무 강하다? 주위에서 한탕 했다고 하면 참지 못한다? 이제까지 우리는 창조보다 모방 또는 베끼기로 한탕주의에 빠져 있었다. 그 결과로 표절이 심화되고 결국 우리 대중문화는 표절문화라는 불명예스러운 딱지를 안고 살아왔다. 한편, 얼마전 인기 정상을 달리던 가수의 노래가 표절로 밝혀지면서 우리 대중음악의 한탕주의가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자성이 강하게 일고 있다. ▲한류의 열풍이 분다. 한국 가수들의 노래, TV 드라마, 영화 등 한국 대중문화가 중국에서 큰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아시아의 문화 강국을 자랑하던 일본을 제치고 빠른 속도로 아시아의 젊은이 문화를 평정하는 커다란 성과를 거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류의 열기는 식을 줄 모르고 중국

'소황제'들의 내한을 부추겨 중국의 새로운 소비 세력을 구축하면서 한국의 새로운 문화산업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지난 해 10월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열린 한류 열풍이었던 '한류 열풍 스타 대출전' 콘서트를 펼치려는 바람에 그간 한류 열풍에 기여해온 업체들은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는 한 업체가 무리하게 1회성 이벤트를 추진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처구니없는 사고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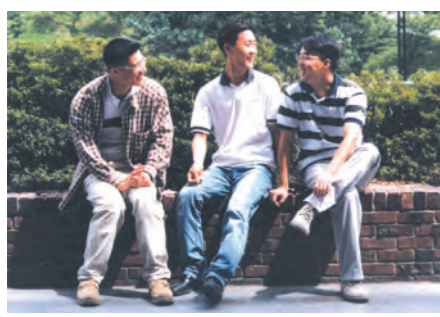
그로 인해 중국 정부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고, 결국 한국 연예인들의 올해 공연횟수를 지난해보다 60~70% 감소하게 만드는 부작용까지 초래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한류에 매료된 아시아 젊은이들의 상업적 욕구와 각종 문화시장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태다. 한탕주의에 찌든 우리 문화가 그들이 알게 된다면 한류 열풍은 순식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한국의 대중

문화 선풍은 이제 폭풍이 될 것이다. 단기적으로 크게 한탕 하려는 의식을 버리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고품격, 고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에 정실히 요우되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창의성과 혁신을 촉진하는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쟁력 있는 고유 산업모델을 만들어내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최창호 대학부장
windy@mail.dongguk.ac.kr

소나기

복학생이 말한다.
복학생에게 말한다.



△현역과 복학생의 조화로운, 평화로운 학교가 됐으면...
△현역이 예비역 시다바리가!
△세상에는 세 부류의 학생이 있다.
남학생, 여학생 그리고 복학생.
△복학생 읍빠! 제발 어리버리하게 말하지 마시다.
△맨날 공부만 하지 말고 우리랑도 노라줘~ 밥도 사주고.
△복학생과 미팅 한판하고 시퍼랑.
△예비역 마내는 열심히 해라. 힘들데이.
△복학생 여러분 福(복) 받으세요. ^^
△복학생 여러분, 어려울 때입니다. 열심히 합시다. 파이팅!
△복학생 티 좀 내지 말지요.
△복학생의 비애! 밥 먹을 시간 됐는데도 밥 먹을 친구 없을 때... 밥 시간은 꼭 꼭 지키기.
△복학생들! 피부 관리 좀 하고 나오세요~!
△이번엔 장학금 받아.
△작년에 재수한다고 휴학했다가 다시 왔습디다. 아~ 적음 안돼!!
△후배 밥 사주고 싶어 T.T
근데 아는 후배가 없다.
△저 후배하고 싶어요.
△dark horse come back! 긴장들 하시라! ^^
△투박로 살아라!
△복학전 열심히 하겠다던 의지는 어디 가고 벌써부터 술 먹고 퍼 자고 있다. 공부합시다!
△소현아 돌아와라 휴~
△복학생하고도 놀아줍시다~!
△때지어 다니며 큰소리 치는 것 좀 적당히.
△막상 아는 이들이 적어서 다녀야 할지... 심사숙고해야겠다.
△친바람이 붙면 그때 돌아온다고 했던가? △학교서 복지는 그만.
△복학생들, 담배 피우면 제발 입을 씻고 오시던지 바람을 좀 쐬고 오시길 바랍니다.
△담배연기, 흠~ 숨쉬기가 너무 힘들어요.
△난 그들에게 말하고 싶다.
처음엔 다 그런 거라고...

구호 아닌 생활 속 자비 실천해야

방학중 동국관 학생식당 출입문에 2학기부터는 일반인들의 학생식당 이용을 금한다는 안내문이 붙었다.
일반인이라고 해봐야 장충공원에서 하루를 보내시는 대부분 불우한 처지의 노인들이다. 그분들에게 학교에서 하는 한끼의 식사는 어쩌면 유일한 낙이 될 수도 있는 일이다. 썩 훌륭한 음식은 아니더라도 저렴한 가격에 그만한 질의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며 이것이 본교 식당에 오는 이유라고 생각 한다.
그런데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혼잡한 시간을 피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단지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오지 말라는 것은

너무 일방적인 뿐 아니라 타인을 배려할 줄 모르는 처사라고 생각한다.
본교의 건학이념이 무엇인가. 불교의 자비를 기본 정신으로 해서 세워진 학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넉넉치 않은 돈으로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오는 노인들을 넉넉한 인심으로 감싸안아 드리지는 못할망정, 박정하게 내쫓는 태도는 보는 사람의 마음을 착잡하게 한다.
자비란, 구호가 아닌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삶의 태도를 말한다. 생협은 부디 이런 알팍한 상술에 대의를 망각하는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길 바란다.

권현미 (한의대 본4)

어수선한 분위기 틈탄 도난사건 주의

어느덧 가을의 문턱에 올라선 지금 폭염과 폭우의 기억은 잊혀져 가고 남산의 맑고 서늘한 공기 속에서 학업에 열중하는 학생들과 활기찬 학내 모습을 보면, 흐트러진 기분은 사로잡히게 된다.
노년을 준비하는 나로서는 학생들과 함께 생활한 것이 나의 전부가 된 듯하다. 그래서인지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눈길이 가며 많은 것을 보게 된다.
그동안 내가 수위 생활을 하며 보고 느낀 점을 말해보고자 한다.
개인의 실력과 사회 발전을 위한 본교 학생들의 노력, 무질서하고 학내 기자재를 함부로 사용하는 극소수 학생들의 무의식적이고 습관적인 행동으로 인해 가려지는 모습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학생 개인의 소지품 문제 또한 그렇다. 현금, 카드, 핸드폰 등을 분실하는 신고가 자주 발생하곤 하는데 이런 소지품을

노리는가 하면 습득한 학생증을 위조해 교내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
도서관이나 강의실에서 자리를 비우는 사이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가끔 쓰레기통이나 화장실에서 지갑, 핸드폰 등의 소지품을 발견한다.
이런 소지품 도난사건은 내부인이 아니라 학기초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탄 외부인의 소행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별 뚜렷한 대책이 없는 것 또한 현실이다.
그러므로 각자의 소지품을 잘 챙기고 아까는 마음을 가져야겠다.
과거에 비해 나아진 물질적·경제적인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작은 물건 하나하나를 아낄 줄 아는 마음을 사라지게 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초가를 맑은 공기와 좋은 분위기 속에 부처님의 공덕이 학생, 교수님, 교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미치기를 바라며...

송병두 (정보보호관 수위)

목표 향해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할 때

개강을 하면서 학내 곳곳은 학생들의 환한 모습으로 활기찬 대학 분위기가 다시 시작됐다.
방학동안 나태한 생활로 시간을 낭비했다는 생각이 들어 2학기부터는 수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열심히 생활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개강 후 일주일 정도는 수강정정 기간이라 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어서 출석률이 저조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내가 수강한 수업마다 많은 학생들이 출석을 했고 본격적인 수업이 이뤄진 것은 아니었지만 모두들 교수님의 말에 귀 기울이며 열심히 듣는 모습이였다. 나 또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노트를 펼치며 수업에 임했다.

그러나 개강파티라는 명목의 각종 모임들은 내가 했던 결심을 조금씩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누구나 편가를 시작하겠다고 각오하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다. 그러나 항상 처음에 가졌던 그 굳은 결심을 오랫동안 지키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다.
'시작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걸 믿는 것이 아니라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무언가를 결심하고 시작하겠다 마음먹은 사람들은 그것이 하고 싶은 일이고 꿈이라면 낮은 확률일지라도 희망을 갖고 내 스스로의 길로 만들어 가야 한다.
'작심삼일'이 되지 않으려면 내 스스로가 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 보아야 할 것이다.
김지옥 (상경대 정보산업2)

원활한 수업진행 요망

개강을 한 지 일주일일 다 됐지만 첫 주라 그런지 수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 같다. 20학점의 수업은 많다면 많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수업 중 제대로 수업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다섯 손가락으로 꼽을 수도 없다.
첫 수업! 교수님이 들어오셔서 한 학기간의 강의계획을 간단히 말하고 지나가는 가벼운 수업이라는 것이 교수님과 학생들에게 당연하다는 듯이 인식되었다. 그래서 2시간 수업을 10분, 20분만에 끝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지도 모른다. 오전 9시 수업을 9시 20분도 채 되지 않아 마치고 3시간 이상을 기다려 오후 수업을 들어갔다. 30분을 기다려도 교수님과 조교는 들어오지 않자 학생들은 하나둘씩 나가기 시작했다. 휴강된 것이다. 벌써 이렇게 휴강된 수업만 해도 꽤나 된다.

교수님들이 수업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못내 아쉽기도 하고 많은 시간을 기다려 수업을 들어갔는데 휴강이라니 화가 나기도 했다. 교수님들의 사정도 있겠지만 휴강이 많은 것 같다. 사정이 있다면 될 수 있는 한 수업시간을 벗어나서 하는 배려를 해 주었으면 한다.

최현정 (인문대1)

색다른 느낌의 개강

어느새 개강이다. 매일 학교에서 살다시피 한 나에게 개강은 그렇게 큰 의미로 다가오지는 않았다. 하지만 나와는 상관없이 학교는 어느새 학생들이 북적거리며 활기가 넘치기 시작했다. 처음엔 개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나도 왠지 기분이 설레는 것은 그런 사람들 속에서 새삼 활기를 느낀 탓일 것이다.

매일 보던 사람들도, 낯선 사람들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얼마나 새로운지... 방학 때 보지 못했던 친구들, 여전한 녀석들도 있고 조금 더 예쁘고 성숙해진 녀석들도 있지만 반갑기는 마찬가지다.

시작이라는 것은 항상 사람을 설레게 만드는 것 같다. 새학기의 시작은 새로운 교수님과 더 나은 학점을 기대하게 한다. 또 새로운 마음으로 다이어리를 정리하게 하기도 한다. 언제나 일주일도 채 안되어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곤 하지만 그 상쾌한 기분만큼은 시작이 아니고서는 느낄 수 없을 것이다.
시간이 지나 점점 고학번이 되어가면서 처음 대학에 들어와 새내기로서 느꼈던 설렘은 점차 사라지겠지만, 매년 새학기마다 느껴지는 이런 신선한 느낌은 계속될 것이다.
임휘실 (사범대 역사교육1)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단어 사용 신중하길

긴 휴가 내내 음츠리고 있던 기사들이 활개라도 치듯 지난호 동대신문은 기획으로나 기사면에서나 볼거리가 많았다. 하지만 문화면의 기사를 읽으면서 한가지 아쉬움을 느꼈다.

10면의 위안부 할머니들에 관한 기사가 바로 그것인데 중반 도입부에서 '중군 위안부'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중군 위안부'에서 중(從)은 '따르다'라는 뜻으로, 우리나라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위안부에 지원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불가항력으로 아픈 상처를 겪어야 했던 위안부 할머니들은 '일본군 위안부'라 불리기를 희망하고 있고 본인 역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긴 기사 속에 단 한번 나오는 '중군'이라는 단어지만, 동국을 대표하는 언론매체로서, 그리고 옛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상처를 함께 느끼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의무를 가진 한국인으로서 바른 용어를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

이인화 (문과대 국문2)



(제1323호 8월 27일자)

'성' 쟁점 공감한 기사

얼마 전 트랜스젠더가 대중매체에 얼굴을 비춰 화제가 됐다.

평소 트랜스젠더에 관심이 있던 나는 지난호 학술면을 보고 많은 부분 공감했다.

특히 성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제3의 성으로 의식변화'를 다룬 부분이 매우 좋았고, 그들의 법적 문제에 대한 글도 인상 깊었다.

다만 한가지 아쉬운 것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전반적인 대중의 태도와 반응이 어떠한지 나와 있지 않다는 점이다. 사회를 이끌어 가는 것이 대중인 만큼 그들이 바라보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의견 추이는 트랜스젠더들의 미래와 연결되는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영희 (인문대1)

수강정정 방법 개선방안 필요

교양과목 부족 ... 초과 신설 통해 선택폭 넓혀야

1학기 때 수강신청을 너무 성급하게 하는 바람에 수강정정 기간을 이용해서 많은 과목을 정정하게 되었다.
첫날부터 도서관은 많은 사람들이 꽉 차 있었다. 몇 십 분을 기다려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교양 과목은 여분의 자리가 남아 있지 않았다.
그러나 전공과목으로 학점을 다 채울 수 없고 관심 있는 교양과목을 찾아보았지만 이전에 들었던 강좌들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꼭 들어보고 싶은 과목은 자리가 남아 있지 않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오랫동안 컴퓨터를 붙잡고 있었지만 여분의 자리를 구할 수 없었다.

지난 학기 수강신청기간 중 초과과목 개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초과로 개설된 과목은 찾아볼 수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초과과목 신청원을 내지 않은 결과라고 볼 수도 있지만 현재 많은 학생들이 교양과목을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
새롭게 강좌가 개설되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지만 많은 학생들이 요구하는 과목이러니 고려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복학생의 경우 재수강 과목이 없어지고 대체 과목마저 없어 불편함을 겪는 상황도 생긴다.

전공 또한 예외가 아니다. 인원제한으로 전공 이수자들이 과목을 들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무슨 제도든 실행하면서 불편을 감수해야 하지 않는 것은 드물다.

그러나 대학에서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수업인 만큼 학생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적일 것이다.

학생들을 위한 학교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강과목의 효율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진경주 (인문대 서양화3)

서울 ☎ : 2260-3491·2
FAX : 2279-1270
경주 ☎ : (054) 770-2058
FAX : (054) 770-2057
문의·제보 : dgupress@dongguk.edu
하이텔 ID : dgupress
나우누리 ID : 동대신문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동악광장

목먹길

추하합니다

△01신기촌 학형의 생일과 00김민선 학형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기운 학형은 액면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01입니다.
△8월 27일 경영대 01 박찬우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8월 28일 경영학과 00학번 이주연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8월 30일 조용팔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더불어 여자친구와의 200일도 축하합니다.
△9월 1일 경영학과 00학번 문지현, 임규석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3대 총학생회 여러분! 통촉 및풀이 자리 열거했습니다. -통계학도

△E.S.형! 방학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수진아! 방학동안 5kg 감량하느라 수고가 많았다. 부럽구려.

열심히하십시오

△영도형 7급 공무원 섬 잘 보세요. △민영아 힘내고 나랑 같이 공부나 하자. -수경
△세나야! 공부좀 해! 놀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지. 술 좀 줄여! -고적
△인화아! 이번 학기 열심히 해서 기필코 4.0의 신화를 이뤄보자. -이트
△선미야! 우체국 근로 열심히 하구... 점심 한번 췌라. -ppuzic

그리고...

△국제통상학과 사랑하는 학우여러분, 개강입니다. 모두 건강하고 즐거운 2학기 보내요~ 사랑해요. -Uenus
△가교과 김우진 무중의 패유를 빌며... △병준님이 학교 다녀합니다.

은방길

추하합니다

△경태 94 하성목 졸업 축하해. △우리 친구 S양(일명 양미라) 남자친구 생긴거 정말로 축하해. △미란언나 졸업 축하해요! -고적
△미은아 생일 축하해. -호오빠가 △경상학부 '이선우'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요. -멋진친구
△거북아 너 생일 축하한다. 500년만 살아라. নিজ거북아. -준혁

수고하셨습니다

△하게답사 갔다 온다구 힘들었어요. 고적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동국한의 원전 연구회 세미나 終! 프로축구단 NUCLEARS 특송 終!! 수고요!

열심히하십시오

△윤정아, 원희야, 지혜야, 순옥아, 정이야 이번 학기에도 열심히~ △동국한의 경약학과의 적통! 夫齋者一心也!!一心 Fighting!! △세훈이형 2학기때도 열심히! 같이 장학금 함 탐시다. -따리리리
△국사학과 4학년들 마지막 학기입니다. 열심히해서 좋은 결과 있길... -과대
△순석오빠 휴학해도 열심히 -미소천사

그리고...

△친구가 매순간을 힘들어합니다. 그녀가 웃을때까지 옆에 서 있고 싶습니다. -H
△진훈아! 방학동안 알바 수고했다. -형이
△윤희양~ 형우오빠랑 오래 가길 바래. -따리하는 친구
△사관지 6일째입당. 소영♡상훈. Forever
△윤희, 여러, 혜정, 현숙, 헤미.. 2학기도 좋은 추억만들고 사랑한다. -로미가

경주캠 학생회관 식당 차림표

월	쇠고기미역국(1300) 파파두부달걀(1500)
화	쇠고기볶음밥(1700) 생선까스(1800)
수	무채국(1300) 카레라이스(1500)
목	팔복채달걀(1800) 스페냐취족참(2000)
금	김치만두국(1300) 오징어채육볶음(1600)
	닭갈비볶음밥(1700) 탕수달걀(1800)
	오징어무국(1300) 햄야채볶음밥(1600)
	불낙달걀(2000) 비후까스(1800)
	햄숙어찌개(1300) 오므라이스(1600)
	참치야채비빔밥(1500) 집탕밥(2000)

(단위:원)

경주캠 원호관 교직원 식당 차림표

월	낙지볶음·탕국(2500)
화	생선까스(3000)
수	탕수육·동태매운탕(2500)
목	쇠고기달걀(3500)
금	자반고등어찜·달걀죽순국(2500)
	갈비탕(3500)
	돈육생강장구이·홍합살미역국(2500)
	김밥+국수(2500)
	오징어젓갈무침·닭곰탕(2500)
	비빔밥(2500)

(단위:원)